

# 당신의 털도 곤두섰나요?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침팬지의 털이 곤두선다. 낯선 무리 앞에 선 침팬지의 표정은 일그러진다. 이 불행한 감정은 다른 개체들에게 전염돼 모든 침팬지의 털이 일제히 일어난다. 무리를 감싸는 것은 진득한 분노와 공포다. 그 감정으로 일어난 털들은 아글대는 적으로 가득하다.

세계적 침팬지 연구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는 평생 연구해온 침팬지의 '알파 수컷' 행동을 인간 사회에 빗대기도 했다. 공격적으로 군림하는 리더는 침팬지의 우두머리가 그러했듯 강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전한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매년 10월이면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말'들이 쏟아진다. 정치의 나뭇결이 종잡을 수 없는 모양새를 하고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사를 찾아보았다. 아직 험한 말들이 쏟아지진 않고 있었다. 문이 열린 지 얼마 안 되었다.

국감이 제철인 요즘, 예나 지금이나 정치 이슈보다 더 뜨겁게 언론을 달구는 이들이 있다. 리더라고 자인하는 정치인들은 험한 말

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과는 동떨어진 말들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곤두선 털을 자신의 동맹군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 기 위해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배다른 형제, 떼어지 마타도어' 등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조악한 언어들의 릴레이 출현은 이들의 나이마져 궁극에 할 정도다. 유차하다. 그러나 그들은 작성한 듯하다. 미디어는 분노와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주요 뉴스로 뽑아 올린다.

'집단 극단화'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의견이 더 극단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을 만나면 먼저 서로를 탐색하고 같은 편을 알아본다. 그렇게 모인 무리 안에서 분노와 공포는 점점 몸피를 불린다. 정치인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깃발을 내리꽂고, 그 깃발 아래 동맹군들을 대신 모아줄 부수자들을 공공연히 불러 모은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은 깃발에 새겨진 조악한 언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깃발을 더 두세게 휘날린다.

민생의 아픔이 바람 소리가 되어 국회를 에워싸고 있다. 국정감사는 험한 말들이 허우적대며 민생을 밟고 지나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랑을 늘어놓는 쇼의 무대가 아니다. 국감을 그런 무대로 여긴다면 그들은 허

방을 짚은 것이다. 성마름이 가지지 않는 국민들이 그들의 분노와 공포에 전염되어 털을 곤두세우고 있을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자신만이 리더라고 여기는 지금도, 긍정의 언어로 대중 앞에 설 새로운 리더는 분명 자라고 있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지금의 그 리더는 한바탕 자맥질에 취해 있을 뿐이다.

지난해 10월 구달 박사는 세상을 떠났다. 사후 넷플릭스는 구달 박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에서 왜 협력이 중요한지 침팬지 사회를 빗대 강조했다. 공격적으로 군림하는 우두머리는 강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머리를 쓰고 협력하는 수컷은 훨씬 오래 살아남는다는 구달 박사의 생각을 이해하며, 한국 정치에 리더의 자질을 묻는다. 구달 박사의 말은 이어진다. 어떤 변화를 만들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극진한 말이다. 이 말을 국정감사에 임한 정치인들은 기억해야 한다.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아직은 초입이라 뚜렷한 성과를 말하기엔 이르다. 갈 길이 멀다. 부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래의 징표로서의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되길 바란다. 요령부득의 기후위기 정책이 아닌 결국한 진심이 열고 맺음하는 2026년 국정감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3일 (음 9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은 어렵겠습니다. 60년생 날로 변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납니다. 72년생 시간활용을 잘 할 때 입니다. 84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9년생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실물수가 있습니다. 61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세요. 73년생 좋은 사람이 나를 도우니 크게 형통할 운입니다. 85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50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것입니다. 62년생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74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에 진척을 살펴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86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세요.



51년생 눈 앞에 큰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63년생 노력한 만큼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75년생 매사에 신중하세요. 87년생 서남 쪽이 길방입니다.



52년생 손조롭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64년생 늦게 이루어지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76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88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새로운 길이 열릴겁니다



53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65년생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7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89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마세요.



54년생 심신이 피곤한 하루입니다. 66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입니다. 78년생 동남 쪽이 길방입니다. 90년생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와 나를 비추니 부귀영화가 내 것입니다.



55년생 노력하고 기다려 보세요. 좋은 결실이 찾아올 것입니다. 67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79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91년생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하세요.



56년생 시기가 좋습니다. 68년생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마세요. 80년생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세요. 92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오니 크게 성공합니다.



57년생 여행은 휴식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져보세요. 69년생 과음과식을 조심하세요. 81년생 대체로 길하나 여성의 경우 천천히 이루어 지겠습니다. 93년생 뒷 사람을 공경하세요.



58년생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집니다. 70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탄탄대로 입니다. 82년생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94년생 매사불안하나 끝내 이뤄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59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닙니다. 71년생 백만대군이 당신을 지원하니 만사형통입니다. 83년생 좋은 기회는 여러번 오지 않습니다. 95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수(數)의 신비

세상은 신비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풀지 못한 숙제가 많다. 옛날에 비하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여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직접 탐사선을 보내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지금도 UFO의 진위나 실체에 대하여 자신있게 밝히진 것이 없다.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숫자적 계산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용자끼리의 약속일 뿐 실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의 진정한 의미와 발생에 관해서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생활상의 필요에 의한 셈법은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수의 탄생은 연산을 기능하게 하고 연산은 또 다른 분야로 확장되어져 후일에는 수학(數學)이 되어진 것이고, 이 수학은 모든 영역에 실질적으로 기본이 되고 더 나아가 독자적인 철학이자 학문을 구가하게 되었다.

필자는 수의 발생부터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수가 단순히 연산적 역할에서 계산의 바탕이 되는 것 이상으로 천지자연을 포함한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고 풀이해내는 과정에도 수만큼 기본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고대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수(數)는 “우주의 모든 것은 숫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운명 역시 숫자의 진동으로 풀이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태양을 비롯한 행성과 저 먼 별의 움직임 모두 수학적으로 분석하고는 이를 점성술로 발전시켰다. 즉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이 직각 삼각형을 이루는 것에 기인해 그는 사람을 12가지로 분류했다.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모두 더하고 다시 그 합을 더하여 피타고라스 숫자를 정의하고 발전시켜 피타고라스 점성술을 탄생시켰다. 이는 소강철 선생의 매화역수와도 닮았고 동양의 십간십이지 분석과도 통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일반·일간신문, 무료>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6011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2115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위기라던 지스타, 더 큰 게임쇼로의 진화가 시작됐다



기지수첩  
최 빛 나 (IT부)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지스타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불참이었다.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들의 빈자리를 두고 행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자 역시 비슷한 시각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올해 지스타가 오히려 더 큰 무대로 도약할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참가기업의 다양성이 있다. 올해 지스타에는 크래프톤과 웹젠, 팀42 등 국내 게임사를 비롯해 호오버스와 넷이즈 게임즈, 세가, 코에이 테크모, CD 프로젝트

레드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크랙'이 비게임사 최초로 메인 스폰서를 맡고 현대자동차, KT, 유니티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도 합류한다.

이는 단순히 게임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다. 게임을 중심으로 AI와 플랫폼, 모빌리티, 콘텐츠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글로벌 게임사들의 참여 확대는 국내 PC·콘솔 게임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오랫동안 모바일과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PC와 콘솔을 아우르는 멀티플랫폼 전략이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글로벌 게임 콘텐츠는 국내 이용자들의 경험을 넓히고 개발사에도 새로운 시장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스타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신작 공개

와 체험을 넘어 게임 개발사와 플랫폼 기업, 투자사들이 사업 협력과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이 지스타를 아시아 시장 공략의 주요 무대로 선택할 가능성도 기대할 만하다.

물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불참은 아쉽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참가 여부만으로 지스타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세계적인 게임쇼의 경쟁력은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 지스타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다. 국내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고 PC·콘솔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저변을 넓힐 기회다.

지스타는 이제 과거의 성공 방식을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고 있다. 지스타의 변화를 위기가 아닌 진화로 바라봐야 할 이유다.

/vitna@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8 |   |   |   | 7 |   |
|   |   |   | 6 |   | 9 |
| 4 |   | 2 |   | 7 |   |
|   |   |   | 5 |   | 4 |
|   |   | 5 | 7 |   | 6 |
|   |   | 8 |   | 9 |   |
|   |   |   | 8 |   | 3 |
|   | 7 |   | 4 |   |   |
|   |   | 1 |   |   | 4 |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 9 |   |
|   |   |   |   | 8 |   |
| 4 |   |   | 1 |   | 3 |
|   | 4 |   | 9 |   |   |
| 6 |   |   |   |   | 8 |
|   |   |   |   |   | 9 |
|   |   |   |   | 6 |   |
| 2 |   |   |   |   | 4 |
|   | 7 | 1 |   | 5 |   |
|   |   |   | 6 |   |   |
|   |   |   |   | 1 |   |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1 | 2 | 3 | 4 | 5 | 6 |
| 2 | 3 | 4 | 5 | 6 | 7 |
| 3 | 4 | 5 | 6 | 7 | 8 |
| 4 | 5 | 6 | 7 | 8 | 9 |
| 5 | 6 | 7 | 8 | 9 | 1 |
| 6 | 7 | 8 | 9 | 1 | 2 |
| 7 | 8 | 9 | 1 | 2 | 3 |
| 8 | 9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5 |